

'자연과 기술' 탐구 뉴미디어전...!등 뒤로 돌 던지기'

변성원 기자 | 승인 2022.11.24

서구 코스모40서 27일까지



“너희 어머니의 뼈를 등 뒤로 던져라!”

그리스로마신화에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된 이야기의 배경이다. 인간의 오만에 분노한 제우스는 대홍수를 일으켜 인간을 멸망시키고 선량한 데우칼리온 부부만이 살아남았다.

이들은 신에게 인류를 되살릴 방법을 묻자 죽은 어머니의 뼈를 파헤쳐 던지라는 신탁이 들려왔다. 불효를 저질러야 한다는 사실에 고민했지만 곧 그들의 어머니가 대지의 신 가이아이며, 어머니의 뼈는 돌임을 깨닫고 돌을 주워 등 뒤로 던졌다. 그러자 돌이 떨어진 자리에서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다.

'등 뒤로 돌 던지기'는 인습적인 불효의 개념을 초월한 행위이며 인간과 자연의 경계 구분을 벗어나 인류를 자연의 공생적 존재로 받아들이는 사유다. 기술과 예술을 접목해 작업하는 8명의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자연과 기술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며 인간중심주의적 사유를 넘어선 새로운 사유 방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뉴미디어 전시회 '등 뒤로 돌 던지기'가 오는 27일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코스모40에서 열린다. 전시회 입구에서는 관객들이 직접 등 뒤로 돌을 던지며 작가들의 탐구에 들어서게 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실수를 학습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완벽함'에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 등 총 2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임휘재 독립큐레이터는 “8명의 작가가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앞장서서 제시하고 계속 변화할 사유와 태도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변성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